



NEW WORDS

한국어감추기



1. billion

10억

2. gigantic

거대한

3. formed

형성된



4. tight

탄탄한

5. squeeze

꼭 죄다

6. bit

작은 조각



7. harden

굳어지다

8. heat

열

9. fiery

불같은



10. clue

증거. 단서

11. clump

응집되다

12. planetesimal

미행성체

NEW EXPRESSIONS

한국어감추기



1. round and flat

둥글고 편평한

2. square like a block

벽돌 같은 사각형의



3. cloud of dust and gas

먼지와 가스 구름

4. the newborn Sun

새로 태어난 태양



5. formed from ~

~로부터 형성된

6. as it cooled

그것이 식었을 때



7. bit by bit

조금씩 조금씩

8. flowing from it

그것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READING

Reading 1	Why is the Earth shaped like a ball? Why isn't it round and flat like a pancake or square like a block? Why does it spin? And why does it whirl around the Sun?
Reading 2	Most scientists think the answers lie in the Earth's beginning. They think it began billions of years ago with a gigantic, spinning cloud of dust and gas in space. Dust and gas whirling around the newborn Sun started to clump into balls called planetesimals.
Reading 3	The Earth was one of the balls that formed from the dust and gas. As the Earth's gravity pulled in more and more dust and gas, everything squeezed together, tighter and tighter. The ball grew hotter and hotter. It became a red-hot ball called the Earth.
Reading 4	The outside of the Earth didn't stay hot. The melted rock cooled. As it cooled, it hardened. It became a ball of hard rock and metal, as it is today.
Reading 5	But the inside of the Earth never cooled. The center of the Earth is fiery hot. Heat is always flowing from it, and parts of it are still melting. Bit by bit, we are finding new clues about the Earth's beginning. But nobody really knows exactly what happened.

해석

Reading 1	왜 지구는 공 같은 모양일까요? 왜 그것은 팬케이크 같이 둥글고 편평하거나, 또는 벽돌 같이 사각형이 아닐까요? 왜 그것은 돌까요? 그리고 왜 그것은 태양 둘레를 돌까요?
Reading 2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대답이 지구의 기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는 거대하고, 빙빙 도는 먼지와 가스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는 그들과 함께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태어난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먼지와 가스는 미행성체라 불리는 구체들로 응집하기 시작했습니다.
Reading 3	지구는 먼지와 가스로 형성된 구체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먼지와 가스를 점점 더 잡아 당겼을 때, 모든 것들은 더 탄탄하게 꼭 죄어졌습니다. 그 구체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지구라 불리는 빨강고 뜨거운 구체가 되었습니다.
Reading 4	지구의 바깥은 뜨거운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녹은 바위는 식었습니다. 그것이 식었을 때, 그것은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바위와 철의 구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처럼요.
Reading 5	그러나 지구의 안쪽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중심은 불같이 뜨겁습니다. 열은 항상 흐르고 있고, 그것의 부분들은 여전히 녹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지구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